

# 이재명 “민주주의 위기 새 희망 만들겠다” 새해 첫 메시지

### 민주당 신년 인사회…“폭력적 지배 난무” 윤석열 정부 직격 오늘 부산서 현장 최고위 개최…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나 그래도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67석의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새해 첫 메시지부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는 점에서 올해도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타깝게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과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예외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도,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볼만큼 상황이 어렵긴 하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국민과 당원 동지와 함께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 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3년

올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다”며 “잘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주의·인권의 후퇴, 어려운 민생·경제, 불안한 한반도 평화를 당면한 3가지 위기로 규정하고 “역사 발전의 승리, 국민, 민주당의 저력 등 3가지를 믿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뚝뚝 뚝뚝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지도부 외에 문화상 상임고문,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도 참석했다. 문 상임고문은 교수들이 지난 한 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은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해당하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상 전 의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와 관련해 “토끼는 민첩하고 영민한 동물이다.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는 말도 있다”고 운을 띄웠다. 교토삼굴은 “꽤 많은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평소 굴을 세 개 파놓는다”는 말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린 민주당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도 읽힌다.

한편,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신년 인사회 이후 현충원으로 이동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



민주당 지도부 DJ 요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탑을 찾아 DJ 요역을 참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참배한 뒤, 김대중 재단 신년 하례식에 참석했다. 특히,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또 이 대표는 2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는 민주

당 지도부의 관계적 일정이지만 야권 지지층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국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반드시 가야 할 길”

### 신년 인사회…김기현·안철수 등 당권주자들 내년 총선 승리 화두

국민의힘은 새해 첫날인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른바 ‘3대 개혁’의 뒷받침과 내년 총선 승리 등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는 ‘새로운 힘 새로운 해 국민을 위한 2023’ 문구가 적힌 결계가 걸렸고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무한한 기회가 열리고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자유와 연대가 살아 숨 쉬는 나라, 인권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발에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다”며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고 여기에 주춧거리면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3월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당 됐으면 한다”며 “전부 단합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당권주자를 선선히거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유흥수 상임고문을 비롯한 목요상·유준상 상임고문 등 당의 원로들도 각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뒷받침과 총선 승리 등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도와드려서 하고 싶은 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완해야 할 것,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도와드려서 균형감 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담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적극 지지층의 마음도 어루만져야 하고 당의 외연을 넓혀가며 선거에서 이겨야 이성을 펼칠 수 있다”며 “아직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가

치를 잘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대표가 나오셔서 우리 당이 어렵게 탈환한 이 정권을 연장하고 연장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년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3대 개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절박한지를 제대로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 말 진지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숨을 걸고 협력에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년 인사회에 앞서 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2023년 새해 대한민국의 국운융창과 대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루이스 이나시우를 라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 행사 참여자 출국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北, 새해 첫 새벽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 새해 강경기조 예고

북한이 새해 첫날인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 발사 장소와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를 연속 도발은 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또 새해에도 대외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예

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까지 진행 중인 전원회의를 계기로 내부 결속 강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산성있는 투쟁방향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남측을 겨냥한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해 공세적 대남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전원회의는 지난달 26일 시작 이후 이날까지 역대 최대인 여섯째 진행되고 있으며, 회의 결과물인 결정서 초안이 전날 완성돼 이르면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찬중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찬중(56·사진) 이사관이 1일 취임했다.

신임 김 처장은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전임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법제과장·법제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조예가 깊고, 선거법제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찬중 신임 사무처장은 “다양하고 조화로운 선거와 국회의원직을 흠없이 관리해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정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고려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3 신년음악회”**

- 일시 : 2023. 1. 5(목) 18:00
- 장소 : 조선대학교 대호전극장
- 전화 : 062-224-1461
- 대상 : 전 동문 가족등반
- 떡국, 다과, 주차권 제공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광 태

**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 하신 신고하신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신고하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세법에 의거 공과금이 임의로 개장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담양군 월산면 오성리 산15-4, 산13
2. 분묘주소: 무연분묘2기
3. 개장시유: 사유재산권보존/토지의 효용적 이용
4. 개장방법: 종교기관 권리와 관계없이 의거 공고자 임의에 의하여 관세법에 의거함
5. 개장장소: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52(천주교공무원회)
6. 연차기간: 5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날로부터 3개월 이상
8. 공고 인: 광주광역시공무원회 광주지역지부지문영위회 9인 신고 재: 광주광역시공무원회 광주지역지부지문영위회 (062-227-7124)
10. 신고방법: 신고인과의 사전에 분묘위탁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세출납서류(제출, 제척으로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로 신고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1월 2일  
공고인: 광주광역시공무원회 광주지역지부지문영위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구명수(30120-XXXXXX)  
· 피상속인 양 구명수의 상속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12월 12일 2022년 12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권자 및 상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위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2일

· 상속인: 1. 구명남(880224-XXXXXX) 광주 남구 회재로1224번길 26, 301호(주거용)  
2. 구명남(600224-XXXXXX) 나주시 월정길 17, 501호 404호 (별거장동, 별거장동에이(지정간사이버))  
3. 구명남(610903-XXXXXX) 나주시 다대동 민생길 13-10  
4. 구명남(630812-XXXXXX) 고령시 덕안구 충장로475번길 27, 103/가동 301호 (영사동, 원당하이브)  
5. 구명남(651216-XXXXXX) 광주 남구 월정로50번길 63, 102동 406호 (전남동, 광명아파트)  
6. 구명남(670307-XXXXXX) 인천 남동구 구로로3900번길 6, 803호 (안정동, 평안아파트)

· 신고기간: 2023. 1. 2 ~ 2023. 3. 14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2. 구명남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황인배(590502-XXXXXX)  
· 최후주소: 나주시 가야길 236-29(진포동)  
· 피상속인 망 황인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12월 1362호로 신청하여 2022년 12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권자 및 상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위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2일

· 상속인: 1. 조순원(61020-XXXXXX) 나주시 가야길 236-29(진포동)  
2. 황찬균(900629-XXXXXX) 부산 수영구 수영로 641, 102동 903호 (명인동, 힐타빌시티)  
3. 황찬원(920510-XXXXXX) 대전 동구 동서대로1653번길 131, 405호 (용전동)  
· 신고기간: 2023. 1. 2 ~ 2023. 3. 14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조순원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